

전국 2만1126가구 공급... '조직문화·체질개선'에 방점

2023 건설사 경영전략

1 현대건설

전국 5곳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
스마트 건설 기술로 가치 실현
조직이 성장하는 문화 조성

현대건설은 올해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2만1126가구(일반분양 1만122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 경영 방침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인류의 꿈과 상상력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등으로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올해 월별로 ▲1월(27가구) ▲2월(3093가구) ▲3월(4746가구) ▲4월(1247가구) ▲5월(3927가구) ▲6월(791가구) ▲9월(2344가구) ▲10월 195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3001가구는 분양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총 29개 사업지에 주택이 공급되며 전국 5곳에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현대건설 계동사옥, (작은사진)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건설

아파트를 분양한다. 우선 3월엔 경기의 정부 호원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762가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아파트 1796가구를 공급한다.

5월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아파트 2083가구와 충북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아파트 1327가구를 공급하고, 10월에는 부산 사직1-6지구 재건축 아파트 109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삼성동 대우제약사택 부지 신규 주택 27가구, 이태원 유엔사 부지 신규 아파트 726가구, 대치구 마을3재개발 아파트 245가구, 등촌1구역 재개발 아파트 517가구, 광명 5R 재개발 아파트 820가구를 짓는다.

현대건설이 직접 부지를 매입한 이마트 가양점과 이태원 크라운 호텔 부지에는 각각 493가구, 141가구가 9월 분양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지속 가능한 성장 ▲인류의 꿈과 상상력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등으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은 고객이며 고객에게 상상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때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가 고객임을 강조했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 방식과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원자력 전 분야에 걸친 토탈 밸류(Total Value) 체인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도시와 주거환경을 선도함으로써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진정성 있는 공헌을 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준 대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상 이상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마인드로 철저히 무장하는 한편, 심화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윤리의식에 기반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이슈는 일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완벽한 안전 관리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설... 업계 지형 변화 예고

지난해 인수 관련 제의... 실사 진행
이준행 고팍스 대표 지분 두고 협상

세계 1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원화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구도로 고착화된 가상자산업계 지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고팍스에 인수 관련한 제의를 하고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달 31일 공시사항을 통해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와의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예치 서비스 '고파이'가 FTX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고객 자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같은 달 글로벌 업체로부터 유동성 공급 방안을 포함한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전한 이후 실사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또한 협상 내용 중에서 고팍스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준행 대표의 지분 41%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팍스 측은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고팍스 관계자는 "지난

달 실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 기업과의 계약 조항상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가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위해 다수의 거래소와 접촉해왔다"며 "유동성 공급을 원하는 고팍스와 국내 진출을 원하는 바이낸스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속도가 붙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앞서 계열사 '바이낸스 코리아'를 통해 국내 진출에 나섰다. 지난 2021년 8월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규

제 준수가 어렵다며 국내 시장서 철수를 결정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대부분 거래소와 입출금은 연동돼있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 지원 및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의 계좌까지 확보하고 있는 고팍스를 인수해 우회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한편 고팍스가 바이낸스를 등에 업을 경우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는 업비트가 80%, 빗썸이 10% 가량을 전체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고팍스에 인수 관련한 제의를 하고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토이미지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고팍스가 특금법 이후 계좌 확보까지 다시 확보했음에도 이전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서 0.1% 수준에 머무르면서 반전이 필요하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지 미지수지만 기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국내 기업 4분기 어닝쇼크 전망에 개미들 '암울'

(지난해)

상장사 252곳 영업익 36조3994억
전문가들, 보수적 투자 대응 조언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발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보수적인 투자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제시한 기업 실적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

252곳의 4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36조3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45조2555억원 대비 19.57% 감소한 수준이며 상장사 252곳의 한 달 전 추정치 38조6232억원보다 5.8% 감소한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통상 4분기 실적엔 상여금, 영업 외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한 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하향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는 6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어닝쇼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5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6조5000억원)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분기 중·후반부터 고객들의 재고 조정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당초 회사 측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폰의 시장 수요 부진과 애플의 생산 차질 영향이 각각 디스플레이(DX)과 디스플레이(SDC)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이같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증

시 부진 또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시장 전반의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책금리는 올 상반기에도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 여파로 소비 부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익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직전까지 전망치가 상향 조정 중인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며 에너지, 자동차, 은행, 통신은 4분기 이익 변화율에 비해 강대 수익률 부담이 작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키움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4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만 해도 중개형 ISA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 및 무료 체험 지원금 1000원을 지급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